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3호 【루계 제25562호】 주체106(2017)년 2월 2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자

삼지연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향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이다. 우리 혁명력사의 제1페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군을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터 삼지연군이 전례없는 창조와 건설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으며 온 나라의 아낌없는 지원열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중단없이 맡은 대상건설을 완강하게 내밀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설계와 자재보장,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삼지연군꾸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천명의 청년들이 일시에 돌격대에 탄원하는 미풍들도 발휘되고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영광의 땅 삼지연군을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되여 불타는 충정과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꾸리기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혈통으로 승리와 번영의 영광만리를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삼지연군꾸리기보다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삼지연군건설은 그 목적과 의의가 더없이 숭고할뿐아니라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산간도시의 본보기군, 표준군,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업이 제일 발전된 장사는 물론,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앞선 전형단위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희한한 고장으로 변모시키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삼지연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승승을 들으시며 성장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어디에나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력력히 어리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에로의 첫 답사행군로정이 여기에 새겨져있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 구상을 부르익히신 력사의 장소도 여기에 있으며 최악의 역경이 겹쌓였던 고난의 시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령마을 굳건히 이어나갈 의지를 가다듬으신 눈보라길도 여기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1970년대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을 발기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걷고걸으신 초강도강행군길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민족의 대통운이 열리고 백두의 혈통이 굳건히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절사보위하는 사업과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하나로 직결되여있다. 자연의 엄혹한 조건속에서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도 삼지연군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이 혁명의 성지에로 더욱 뜨겁게 달려오도록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무두봉답사자려관과 삼지연지구의 답사숙영소들을 새로 건설하고 개건하기 위한 전투도 천만군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답게 튼튼히 지킬수 있게 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삼지연군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 때 이 땅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여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세계가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2013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11월 북방의 강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으시여 어려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력사적인 화룡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삼지연군꾸리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구상을 펼치시고 공사를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도 세워주시었으며 전투목표와 기간까지 정해주신 성스러운 투쟁이다. 건설을 맡아할 강력한 부대의 조직과 명칭,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에 의한 체육촌지구의 특색있는 불장식문제를 비롯하여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날 삼지연군꾸리기는 당중앙의 권위보장과 잇닿아있는 배수 투쟁과 번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될 때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오늘의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또다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과 618건설려단을 비롯한 216사단의 모든 려단들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혜산—삼지연넓은철길공사, 삼지연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백두산종합박물관, 감자가루생산공장, 부사마감건재종간생산기지, 하부구조건설을 올해중에 반드시 완공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다그쳐야 한다. 모든 건설물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만년대계로 완공하도록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면서 중요대상공사장들에서 단위별경쟁, 단계별경쟁, 공정별경쟁, 직관경쟁, 수송경쟁을 비롯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인 일군들부터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사상적으로 떨쳐나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문제를 푸는데 한몸 서슴없이 내대고 뛰고 또 뛰며 만난시련도 뚫고나가는 일군이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일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을 배우고 당의 혁심력량으로 자라났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도, 조직자적수완과 사업능력도 다름아닌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뚜렷이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삼지연군꾸리기에 강력한 력량을 조직동원하는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삼지연군건설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자주 삼지연군에 찾아가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건설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 그들이 맡은 대상건설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게 하여야 한다. 자기 단위에서 당에 대한 충정심이 높고 건설경험이 풍부하며 기능이 높은 사람들로 돌격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삼지연군꾸리기에서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풀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철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삼지연군꾸리기를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삼지연군꾸리기는 3—4년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이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216사단의 각 려단들에서는 강추위속에서도 맡은 대상건설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비닐막막으로 덧집을 짓고 보온대책을 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건설의 첫 공정인 설계를 앞세우고 공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을 적극 따라세워야 삼지연군건설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진척시킬수 있다.

설계부문에서는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게 되여있는 대상들에 대한 설계들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최대로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려야 한다. 지금 건설건재공업성과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수도건설위원회, 석탄공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성, 체육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 중앙기관들이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세멘트생산과 물동수송, 설비와 자재보장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생산잠재력과 가능성을 총발동하여 여러 종류의 강재들과 중량레루, 각종 기계설비들, 질좋은 전기를 충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구상대로 삼지연군을 전변시키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삼지연군꾸리기공사를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혁명사적부문과 과학연구부문, 교육, 보건, 체육, 문화예술,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는 력량과 수단,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맡은 대상들의 완공 및 운영과 현대화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삼지연지구에 답사숙영소각들과 급양봉사시설들, 상업봉사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개건하는 사업을 맡은 단위들도 여기에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심장으로 부르며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삼지연군꾸리기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로,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훌륭히 꾸려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서정건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서정건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의 정당들과 까라까스시, 미란다주, 바르가스주의 12개 사회단체, 운동조직이 공동명의로 상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상장을 드리는 행사가 14일 까라까스시에서 진행되였다.

상장을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펠릭스 헤쑤스 멜라스께스 까스띠료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상장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의 뉴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린다고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15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캄보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왕궁담당부수상 콩 쌈올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정부 왕궁성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과 대왕후가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삼지연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날로 활짝 꽃펴나고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땅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폭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우리 혁명력사의 제1페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땅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제일 가까운 곳에 두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궁전으로 더 잘 꾸리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 궁전의 일군들, 교직원, 소조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궁전에는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희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으로 여기시며 후대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뜨겁게 굽이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1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과 궁전의 일군들, 교직원, 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우리 학생소년들이 사회주의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자라날것을 바라시는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강성조선의 희망찬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교직원,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교직원, 소조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함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는 재능동이들의 궁전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모든 교직원들과 소조원들이 궁전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 행복동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제21차 김정일화축전 폐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돐경축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이 폐막되였다.

만민의 열화같은 위인칭송의 세계에 떠받들려 충정의 꽃바다를 펼친 이번 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과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2월의 불명절을 맞으며 활짝 피여난 태양의 꽃으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은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련일 대성황을 이루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과 해외동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단 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손님들도 축전장을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폐막식이 21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리키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해외동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폐막식은 시작되였다.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이 축전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과 일군들, 재배공, 개별참가자들에게 수여되였다.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등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이 받았다.

또한 이번 축전에 불멸의 꽃을 전시한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김정일**화축전 참가증이 수여되였다.

폐막사를 김창도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이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태양의 꽃으로 황홀경을 이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불멸의 꽃을 나라의 국보로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피우며 세계 여러 나라 화초애호가들과 **김일성**화 **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일**화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만민칭송의 명화 **김정일**화는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과 혁명,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며 더욱 만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의 주악으로 폐막식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광석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인민의 기쁨에서 보람과 락을 찾으시며

열렬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념원속에 2월의 나날이 흐르고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하늘에 닿아서인가 2월의 하늘가에 눈부신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린다.

애오라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고결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꽃피워주신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오늘도 초소의 전호가에서, 들끓는 공장의 구내길에서, 농장의 포전에서 아니 온 나라의 곳곳에서 금시라도 자애로운 그 영상 뵈올것만 같아 천만군민은 그리움의 꽃다발, 영생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엮는다. 2월의 하늘가에 위대한 태양찬가가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세월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말씀하군 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것입니다.
…

되새길수록 못 잊을 력사적화폭들이 련면히 어려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어느해 2월의 명절을 앞둔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카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은 군인들에게 좋은 텔외루를 만들어있히자고 한다고, 언땅에 엎드려 근무를 서는 군인들에게 좋은 텔외루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협준한 최전연의 고지들을 찾고찾으시여 군인들의 솜옷알섶을 엇바루어 만져보기도 하시고 누빈 줄을 따라 몇번이나 유심히 살펴보시며 군인들이 춥지 않게 솜옷과 솜신발에 솜을 두툼히 넣어주자고 다심히 이르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뜨겁게 슴배인 솜옷을 받아안고 초소의 병사들은 정말 좋아하였다.

오늘도 초소의 군인들이 즐겁게 리용하고있는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록화기에는 또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 어려있는것인가.

어느해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들에 차례질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록화기 그리고 보충용《선물》음악과 함께 군인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노래가 수록된 DVD가 준비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인민군대에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록화기를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때 《선물》음악이 수록된 DVD도 함께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중대들에 빨리 공급해주어 군인들이 그 기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전군절을 즐겁게 쇠도록 하자고, 그러면 군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께 일군들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것들을 다 해결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해 전군절을 맞으며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록화기와 많은 노래가 수록된 DVD를 받아안은 병사들은 기쁨에 넘쳐, 격정에 넘쳐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전리방선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어느해인가 온 나라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즐기고있던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군인가정으로 불리우는 한 가족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 갑나무중대를 찾으시였던 때 중대예술소품공연을 보아주시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처녀병사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갑나무중대에 좋은 손풍금을 2대 선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중대로 갈 때 그 손풍금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중대군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다심한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손풍금을 받아안은 초소의 녀병사들은 너무 좋아 손풍금소리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로 사는 이 나라 수천수만의 청춘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담고서 방선천리에 메아리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병사들을 찾으실 때마다 무엇인가를 더 안겨주고싶으시어 기념사진을 찍자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사연을 되새기며 오늘도 초소의 병사들은 눈시울 적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로 열려진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청년영웅도로를 달릴 때면 도로건설이 한창인 때 모든 돌격대원들에게 만두를 해먹이자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극진한 은정을 부어주신 력사적화폭들이 빛발쳐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어느해인가 어느 한 땅공장의 종업원들은 험난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헤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는 헤기밥을 드시지 않게 해달라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그이께 정성다해 마련한 여러가지 빵을 올리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빵을 친히 보아주시고 아주 좋다고 치하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지성을 받아주신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기뻐하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빵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면 좋겠다고,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학원원아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이 매우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이번만은 인민들의 지성을 받아주십시오.》

인민의 념원담고 일군의 목소리는 절절히 울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일없다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런 격정넘친 사연을 우리 어이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친히 자강도를 찾으시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새집들이를 한 사람들에게 텔레비존수상기와 전기밥가마를 보내주자고, 그러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극진한 은정을 베푸신분,

생의 마지막시기 인민들이 찾아올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여서도 상품들을 많이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기쁨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과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베푸신 은정은 천만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대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다.

영원히 잊을수 없다.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나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화폭만을 펼치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정과 바치신 로고들.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속에 있다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다시며 언제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펴시여 력사를 울리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도 다 겪으실지언정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봄빛만이 안겨져야 하고 인민들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한마음이였고 그이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어버이장군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뜻이였다.

그 뜻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는 사랑과 인덕의 대화원이 펼쳐져 온 세상을 울리였다.

절세위인의 풍모와 인덕에 매혹된 외국의 한 통신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비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그이께 청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비에 대하여 말한다면 자신께서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이라고,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들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할수 있다고 고결한 뜻이 어린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나 소중히 자리잡고있은것은 바로 인민이였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 한평생 불자그대로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한없이 울린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그토록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오늘도 온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김정일장군님의 노래가 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진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십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의 갈피에는 천만군민을 신념의 강자, 락천성의 소유자들로 키워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자면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시의 어느 한 기업소 생산공정을 돌아보시고 구내길을 걸으실 때였다.

주변에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 길량옆에는 단벗나무아지마다 주렁진 빨간 열매가 구내의 운치를 돋구어주고있었다.

마치 휴양소나 과원을 방불케 하였다.

이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구내의 풍치를 보고 또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이 기업소구내에 단벗나무가 2 000여그루나 있으며 해마다 키워서 많은 열매를 따다가 종업원들과 학아소, 유치원에 공급해주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구내를 깨끗하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강도사람들이 원래부터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사는것 같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생산진물벽에 씌붙인 하나의 구호를 바라보시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그 어떤 주저와 동요도 없이 투쟁하려는 희천로동계급의 락관주의정신이 생생히 어려있는 글발이였다.

구호를 다 읽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기업소구내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멋있게 써붙였다고, 우리도 지금 가면서 웃고있지 않는가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뜨겁게 교시하시면서 더욱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시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그이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가는 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엄혹한 시련이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여있었던가.

민족의 대국상으로 인한 피눈물의 바다,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가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로 초래된 경제난, 식량난…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있는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주체의 길, 선군의 한길로!

되새겨볼수록 이 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억센 신념, 그이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면 기어이 잘살 날이 온다는 락관과 랑만이 집약된 참으로 좋은 구호이라는 생각이 일군들의 가슴을 다시금 세차게 울려주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구호를 보시며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는 준엄한 시련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이곳 로동계급을 위훈의 창조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한껏 어리어있었다.

그후 이 구호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나붙어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폭발시키는 유명한 구호로 되였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리키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한 점의 그늘도 있을세라

저 하늘의 태양은 대지우에 빛을 뿌려도 그늘진 곳을 남긴다.

허나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천만군민모두의 가슴마다에 한점의 그늘도 남기지 않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수십년전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전국적으로 국가표창사업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30년력사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높은 국가수훈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선물들을 받아안고 크나큰 감격에 넘쳐있었다.

철부지아이들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자랑이였고 만나는 사람들도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제기된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자료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공화국창건의 나날 우리 나라의 국장과 국기도안창작에 참가한 미술가가 이번 수훈자명단에서 빠졌다는 자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뜻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자료를 다시 자자구구 따져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마음은 무거우시였다.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한 수훈사업에 그 미술가가 빠지다니, 세상에 이런 실책도 있는가 하는 서운함에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남들이 가슴가득 훈장을 달고 웃고 떠들며 기쁨을 주고받을 때 눈물이 그렁하여 창밖만 내다보고있을 그 미술가와 서러움에 잠겨있을 가족의 모습이 어려오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리 그를 찾아 선물을 안겨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긴 설명은 하지 않으셨으나 일군들의 지책은 컸다.

너나없이 훈장을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던가 하는 죄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 우리 민족의 힘찬 기상과 창창한 미래가 담겨진 그토록 훌륭한 국장과 공화국기의 도안창작에 참가한 미술가에 대하여 환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들이 민망스러웠다.

그를 어데서 어떻게 찾을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30년전의 일을 되새기시다나니 그때 미술가를 찾아내자면 힘들수 있겠는데 누구에게 가보면 알수 있을것이라고 친절히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즉시로 그를 찾아가 여러 연줄을 톺아보았다.

여러날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일군들은 끝내 그 미술가를 찾게 되였고 도안창작과 관련한 깊은 사연을 자상히 알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되기 한해전부터 그를 헌법제정위원회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에게 도안창작의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던것이다.

그 미술가는 우리 나라 국기와 국장은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도안창작에 정력을 쏟아부었다.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우리 조국의 존엄이고 상징인 국장과 국기도안은 훌륭히 완성되였다. …

일군들로부터 그 미술가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이제는 고령에 이르러 손에서 붓을 놓은지도 이미 오래된 늙은이였다.

병으로 신고하던 백발의 로인이 은혜로운 봄빛을 받아안았으니 그의 격정이 어떠했으랴. 온 가족이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쏟고 쏟았다.

오래동안 한인민반에서 살면서도 그 로인의 공적을 전혀 모르고있던 사람들은 너무도 송심깊고 너무도 사려깊은 위대한 사랑에 한결같이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우리 장군님은 정녕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도 없도록 따사로운 해빛을 주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십니다!

본사기자 채 히 성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인민들이 지키는 질서는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림 길 선

평양시의 어느 한 번화한 길가에 제가 일하는 연유공급소가 자리잡고있습니다.

키낮은 4대의 휘발유공급기와 자그마한 건물 한채, 나지막한 꽃벽돌울타리에 둘러싸인 우리 연유공급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 혁명초소를 더없이 사랑하며 여기에서 보람찬 삶의 기쁨을 활짝 꽃피워나가고있습니다.

제가 일터를 그토록 사랑하게 되는것은 맡은 사업이 중요하다거나 사회생활의 첫꿈을 키워온 정든 곳이라는데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도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기때문입니다.

주체61(1972)년 10월 17일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을 보고있었습니다. 이날따라 휘발유를 공급받으려 온 차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구내가 복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쉼을 하고 조용할 때 일을 보려고 밖에 나섰습니다.

구내에는 싱그러운 들국화가 한창이였습니다.

제가 구내에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앞문쪽에서 자동차경적소리가 나더니 까만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저 차가…》

저는 그 자리에 무춤 멈춰섰습니다.

휘발유를 넣으려 오는 차들은 반드시 뒤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가는것이 모든 연유공급소들에 세워진 하나의 질서인데 그 차만이 류별나게 앞문으로 들어서기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사에게 말해서 차를 뒤문으로 돌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경비원아바이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운전사동무, 왜 앞으로 들어오나. 차를 돌려서 뒤문으로 가라구.》

차에서 내린 운전사는 송구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바쁜 김이 되어 그러는데 사정을 좀 봐달라고 공손히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승용차문이 반쯤 열린 사이로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왔는데 이곳 질서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차를 어서 돌리라고 운전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였습니다.

그 음성이 웅글면서도 얼마나 부드럽게 안겨오는지 저는 마음이 차안으로 끌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잠시후 승용차의 뒤문이 열리더니 차에 앉으셨던분이 환하게 웃으며 내리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에게로 몇걸음 다가오시며 활달한 음성으로 운전사를 대신하여 사과하시는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연유공급소에 처음 오다보니 질서를 잘 몰라 앞문으로 들어왔습니다. … 차를 돌려 뒤문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운전사는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차에 오르시자 운전사는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눈인사를 보내며 차머리를 돌리였습니다.

승용차가 뒤문쪽으로 간 다음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저의 마음은 그지없이 설레였습니다.

《어마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의 일에 저는 어쩔수 없이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자리를 잠간만 옆으로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에 다가가서 운전사에게 차를 앞으로 빼으라고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운전사는 인차 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승용차에 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가 빨리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동을 걸고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나가려던 승용차가 웬일인지 발동을 끄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수 없어 한참동안 차를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혹시 차가 고장난것이 아닌가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것도 아니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까와 막 울고싶었습니다.

후에 저는 운전사의 말을 듣고서야 승용차를 멈춘 까닭을 알수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먼저 공급받으라는 저의 신호를 받은 운전사는 발동을 걸고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갑자기 울리는 경적소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셨던지 보시던 문건에서 눈길을 떼시고 밖을 내다보시였습니다.

줄지어선 앞차들이 한옆으로 비켜서는것을 보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나가려고 서두르는 운전사를 제지시키시며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우리라고 례외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지키는 사회질서를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한없이 겸허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감동된 운전사는 더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차의 발동을 다시 걸었던것입니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앞차들이 휘발유를 넣고 나가면 그 빈자리에 들어서며 조금씩조금씩 움직여나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가 구내길과 잇닿은 뒤문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서있는 저를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승용차문을 반쯤 여시더니 환한 미소를 보내시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애써 몸가짐을 바로하고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정겹게 답례하시며 우리가 공연히 동무에게 수고를 끼쳤다고 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는 저를 자애에 넘친 눈길로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운전사더러 자신께서는 앞문쪽에 가서 기다릴테니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나오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아니, 밖에서 기다리시다니?!…)

저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운전사도 영문을 몰라 의아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희들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나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차들이 휘발유를 넣으려 연유공급소구내에 들어갈 때 운전수만 들어가게 되여있으면 우리도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어서 운전수만 차를 몰고 들어가서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뜨거운 격정에 또다시 목이 메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질서야 우리들자신과 운전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헤치였습니다.

저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피로를 다소나마 덜어드리려는 생각에서 차안에 앉아계시여도 일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굳이 사양하시며 길가에 서계시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하기만 하였습니다.

그이를 사무실에 모시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럴만한 방이 없어서 모실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위를 둘러보시다가 왔던김에 연유공급소구내나 좀 구경해보자고 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으시며 여기서 무슨 일을 보는가, 하루 평균 자동차들은 몇대나 오는가, 연유는 제때에 들어오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였습니다.

3 면 으 로 계 속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학습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자

산지식으로 되게 하는것이 기본이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청남구)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내용이 훌륭하고 배우려는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지 못하면 응당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어디까지나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고 혁명의 량식을 섭취하기 위한 실속있는 학습으로 되여야 합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청남구) 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해 11월 당 제7차대회 보고에 대한 분답식학습경연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청남구인민위원회 학습만성원들의 분답식학습경연 준비정형을 료해하던 당위원장 안창홍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거의 모든 성원들이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었지만 현실과 결부하는 측면에서는 응당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이것은 학습이 고정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 주되는 원인은 학습을 그 진수를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지 않고 암기식으로 해온데 있었다.

학습에서 독경식, 형식주의는 금물이다. 기계적으로 외울 내기를 하는 학습, 자기 사업과 생활, 혁명실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습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당위원회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한가지를 학습해도 그 내용을 깊이 새겨가면서 원리적으로 진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가.

우선 학습을 내용과 대상의 수준에 따라 실정에 맞게 조직하게 하였다. 중요하게는 강의에서 주입식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게 하였다. 다시말하여 제강을 일률적으로 읽어주며 필기시키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강의시간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보면서 강의를 하게 하여 청강자들도 다 머리를 쓰고 강의내용을 머리에 새겨넣게 하였다.

실례를 들어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에 대한 학습제강이 나왔을 때였다.

당위원회는 학습강사들이 강의에 출연하기 전에 학습제강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주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문헌을 제시해주었다.

그들이 강의를 필기전달식으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기 말로 구수하게 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학습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은 학습강사의 날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시범출연대상을 미리 준비시키지 않았다. 임의의 학습강사를 출연시키고 강의합평을 통해 경험을 배우게 하였다. 이 과정에 모든 강사들이 강의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게 된것은 두말할것 없다.

또한 학습담화를 자주 하게 하였다. 사람마다 사업조건과 임무, 수준이 다른 조건에서 학습에서 천편일률식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이 사업에 주판부서인 선전선동부 일군들뿐만아니라 당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이 참가하게 했다. 이에 따라 렴석탄광과 룡림탄광을 비롯한 담당한 단위에 내려간 부장들인 최광호, 리광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하였다.

이런 사업은 모든 단위의 당일군들속에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좋은 점이 있었다. 학습에서 형식주의적요소들이 극복되고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화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학습토론은 학습한것을 공고히 하며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위원회는 토론을 강의받은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함으로써 실지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산학습으로 되게 하였다.

당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남, 부부장 손남철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학습토론이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데 기본을 두고 론쟁의 방법으로 심화되도록 의도적으로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습토론이 벌어졌을 때였다.

청남구인민위원회 학습만에서 진행된 학습토론에 참가한 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청남구식료공장에서 진행중에 있는 강냉이는분리기를 제작완성하기 위한 사업정형을 통보해주고나서 이 사업에서 일군들이 기수적역할을 다하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습토론을 심화시켜나가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학습토론을 한번 조직해도 형식이나 차리는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데 모를 박고 진행하니 학습토론이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산학습으로 되였다.

학습토론이 있은 후 인민위원회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식료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켜 강냉이는분리하여 먹는기름을 짜고 나머지를 기초식품원료로 리용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게 한것을 놓고도 학습의 실효를 알수 있다.

당위원회의 이런 학습조직과 지도사업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하였다.

학습을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효성있게 조직하여 실천의 무기가 되게 하고있는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경험적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실력가형이 되는 비결

사리원해운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려객 및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배길에 쌓인 감탕을 년에 수만㎥ 처리한다는것은 사리원해운사업소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찬 일이였다.

결정적으로 배수리기일을 단축해야 하였다.

(좋은 방도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갔던 초급당위원장 박성철동무는 지배인이 방금 평겨주었다는 착상을 알게 되였다.

배수리용 배올림대차를 철판과 파고무로 새롭게 제작설치하여 리용하자는것이였다.

원리적으로 따져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해놓으면 종전과 같이 많은 목재와 로력을 들이지 않고 배수리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다고 다들 기뻐하였다.

지배인의 높은 실력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초급당일군이였지만 어느때없이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높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이 특히 감탄하게 되는것은 지배인의 남다른 학습태도였다.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계에 망라되여 공부한 일군이였다. 그의 전공분야는 기계공학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렇듯 기발한 착상을 할수 있은 밑바탕에는 철저히 실천, 혁명과업과 결부시켜 진행한 그의 산학습이 놓여있었다.

학습목표를 세워도 현실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세웠다.

학습을 통해 쌓은 실력을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스스로 검증하였으며 끊임없이 학습목표를 갱신하면서 실력전을 완강히 벌려나갔다.

《80t급상가대》를 비롯하여 그가 소유한 기술혁신증서들에는 그의 이런 불같은 열정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지배인 박광철동무의 높은 실력을 놓고 초급당일군은 자신을 자책하였다.

행정경제일군과 배짱을 맞추고 그를 당적으로 더 잘 떠밀어주자면 자신도 학습태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학습경쟁, 실력경쟁의 마당에 대담하게 뛰여들었다.

당사업실무학습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파고들었다. 필요한 책은 어김없이 보았고 과학기술보급실의 새 기술자료들도 연구하였다.

두 일군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당, 행정배합이 더 잘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교속도철판절단기를 훌륭히 제작해낸 사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혁신의 나날 초급당위원장이 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였다고 말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초급당위원장은 학습전투의 돌격구령을 자신에게 먼저 내린것과 함께 사업소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과정이 철저히 혁명과업실천에 이바지할수 있는 산학습으로 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박운철동무를 비롯하여 학습에서 모범인 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학습경쟁, 실력경쟁의 열풍이 온 사업소에 휘몰아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사업소앞에 맡겨진 정책적과업들을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해나가는 비상한 실천력으로 나타났다.

사업소가 오늘 평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이며 모든 면에서 앞장서게 된것은 학습을 통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상의 강자, 실력의 강자로 자라났기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일군들을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원만히 풀어나갈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로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학습조직과 지도를 심화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실천의 위력한 무기

원리적인식에 모를 박고

함경북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에 제시되여있는 사상리론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지난해 12월 당위원장 김학철동무가 계획에 따라 산하단위 일군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할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제시된 문제를 학습제강대로 토 한자 틀리지 않게 답변하려고만 하면서 내용을 폭넓게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들속에 덮어놓고 외울 내기만 하는 암기식, 독경식학습방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기계적으로 외운 지식은 오래가지 못하며 자기의것으로 되지 못하는법이다.

그는 신년사학습을 원리적으로 하여야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뼈와 살로, 삶과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만들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론쟁과 분답의 방법으로 학습토론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 1월초 이해단위인 도국토계획설계연구소에 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대한 학습담화를 진행하면서도 그 과정이 자신뿐아니라 모든 설계원들이 로작의 기본정신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와 결부시켜 폭넓고 심도있게 체득하는 계기로, 올해 단위의 전투목표를 바로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묘술을 찾는 첫 공정으로 되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을 옳게 정하여

조옥희해주교원대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옳게 평가하여 그들이 혁명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분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될 때였다. 경연진행정형을 료해하던 초급당위원장 김창두동무는 일부 일군들이 젊은 교원들은 물론 나이많은 교원들까지 선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외울것을 요구하면서 원문통달만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원문통달을 했다는 일부 교원들이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평가성원들에게 교직원들이 신년사의 내용을 얼마나 소화하고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어떻게 학습을 심화시키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보충질문을 많이 하여 신년사의 인식정형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였다.

옳은 평가기준으로 진행된 분답식학습경연을 통하여 교직원들은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자신의 뼈와 살로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분답식학습경연은 한주일이면 한주일, 한달이면 한달동안에 학습할수 있는 과제를 미리 내주고 필독문헌과 참고자료도 제시해주어 자체학습을 충분히 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강의나 토론을 조직하여주어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한 기초우에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학습조직에서 틀어쥔 고리

국토환경보호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국토환경보호성 청년동맹위원회가 학습조직과 지도에서 찾게 된 귀중한 교훈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근로단체조직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학습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접한 청년동맹비서 리철진동무는 지난 기간 동맹조직에서 진행해온 학습과정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였다.

한마디로 쥐여짜면 암기식학습방법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 암기식학습방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지난 1월 중앙양묘장분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진행된 분답식학습경연때 있은 일이였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동맹원들이 학습을 원만히 했다고 볼수 있었다. 지명되는 동맹원마다 학습제강의 내용을 그대로 막힘이 없이 대답했던것이다.

그런데 그들속에서 제시된 문제에 해당한 보충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났다.

동맹원들이 학습을 그 진수파악에 중심을 두지 않고 글줄을 그대로 따라외우는 식으로 한것과였다.

학습에서의 이런 형식주의적인 편향은 성안의 모든 동맹초급조직들에서도 나타나고있었다.

산지식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검열을 받기 위한 암기식학습, 이렇게 되다나니 누가 더 빨리 외우는가 하는것이 동맹원들에 대한 학습평가의 기준으로 되였고 그것은 동맹원들로 하여금 학습제강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원리적으로, 실천과 결부하여 파고드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외우면 학습에서 앞선것으로 된다는 관점을 가지게 하였다.

리철진동무는 당의 의도에 맞게 학습조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결심을 가다듬었다.

학습을 암기식이 아니라 원리적인 인식과정으로 전환시키자.

이에 따라 성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학습에서 옳은 방법론을 탐구하고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을 펼쳐나갔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습제강이나 학습과제가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되받아넘기던 지난 시기의 관례를 깨고 일군들이 학습을 조직하기에 앞서 모여앉아 학습내용의 진수를 파악하는데 실효가 큰 옳은 방법론을 찾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암기식, 독경식학습방법을 타파하고 그 진수를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탐구를 먼저 진행하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니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 문답식학습에서 보충질문의 폭을 넓히는 문제와 그 평가비중을 훨씬 높이는 문제, 긍정창조와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법, 론쟁을 심화시키는 방법, 직관물을 통한 인식방법, 읽은책발표모임과 노래를 통한 방법 등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이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직한 학습의 실효는 참으로 컸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 대한 학습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산림연구원분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래 《청춘송가》에 대한 해설모임이 좋은 실례로 된다. 어느 한 초급단체비서의 독창으로 시작된 해설모임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낳는가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학습마당으로 전환되였다. 누구나 스스로 공감하며 따라서게 하는 이런 학습방법은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데서 지난 시기 토까지 따져가며 무턱대고 외우기식으로 진행하던 학습보다 인식적의의가 훨씬 컸다.

우리는 이곳 청년동맹위원회의 사업을 통하여 학습에서 진수를 파악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탐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윤 명 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있다.
—문평제련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2면에서 계속

그이께서 얼마나 소탈하게 대해주시는지 저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 통계원으로 일하고있는데 대해서와 매일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연유를 공급받고있는데 대해서 스스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윽고 자동연유공급기앞에 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대의 부분품들에 깊이 관심하시며 손수 하나하나 만져보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운전사가 승용차를 몰고 뒤따라와서 연유공급기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승용차의 휘발유탱크뚜껑을 열자고보니 그것이 어데서 떨어졌는지 없었습니다. 운전사는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짚이는데가 있는듯 좀전에 차를 세웠던 뒤문쪽으로 달려가는것이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운전사가 달려가는쪽을 바라보시다가 저에게로 돌아서시며 숱한 자동차들이 저렇게 기다리고있는데 휘발유를 빨리 넣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공급기운전공에게 신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기운전공은 잠간 자리를 뜨고 운전칸은 비여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공급기의 운전칸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휘발유주입기를 잡으려면 저는 그만 뜻밖의 일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느새 그것을 잡고계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청하듯 두손을 내밀며 제가 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편찮소. 동무는 수자판을 보다가 공급량이 초과되지 않게 나에게 알리시오.

그러시고는 주입기를 항크구멍에 대시는것이였습니다.

친히 평범한 운전사가 되시여 주입기를 잡으신 그이의 겸허한 모습을 우러르는 저는 숭엄해지는 마음을 걷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운전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주입기를 자기가 잡겠노라고 그이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굳이 주입기를 마지막까지 잡으시고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흘릴세라 조심히 다루시였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씻으시며 운전사더러 휘발유표를 저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운전사가 내놓는 휘발유표를 받지 않겠다고 그의 손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에게 어서 받으라고, 그래야 후에 총화를 정확히 지을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하는수없이 그것을 손에 받아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것이 어쩐지 외람되게만 생각되여 가슴이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운전사가 승용차에 올라 발동을 걸자 그이께서는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휘발유를 공급받을수 있게 차를 옆으로 비켜세우라고 이르시였습니다.

휘발유공급기를 다시 주의깊게 살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옮기시다가 땅바닥에 휘발유가 떨어진 흔적을 발견하시고 귀중한 휘발유를 땅에 흘렸다고 못내 마음쓰시였습니다.

저는 그이의 심려가 가슴뜨겁게 헤아려져 고개를 숙이였습니다.

저를 자애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휘발유는 외화를 주고 사오기때문에 금과 같다, 연유공급소일군들과 운전사들은 휘발유를 흔하게 다루다보니 귀한줄 모르는것 같다,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랑비하지 말고 아껴써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연유공급소일군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설비들을 잘 정비하여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랑비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사들이 휘발유를 아껴쓰도록 선전사업도 하고 통제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그이를 뵙기가 면구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수십수백t의 휘발유를 다루느라면 얼마간 땅에 흘릴수도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에 흘리는 몇g쯤은 휘발유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받아안은 저는 운전사들이 자동차의 탕크에 휘발유를 넣으면서 땅에 흘리거나 휘발유를 말끔히 받지 않고 줄줄 흐르는 주입기를 그대로 기대에 걸어놓는것을 보고도 범상히 스쳐버린 잘못이 가슴깊이 뉘우쳐졌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하연유탕크가 묻힌 둥덕진 곳에 오르시여 구내와 주변을 주의깊게 둘러보시고 연유공급소가 큰길가에 있기때문에 더 잘 거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뒤문으로 들어오는 길도 잘 닦고 구내도 더 알뜰하게 꾸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운전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이 늦어지는것이 념려되여 초조함을 금치 못하다가 이젠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에야 비로소 시계를 들어다보시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였는가고 하시며 그럼 아직 들려볼데가 또 있는데 어서 떠나자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저는 서운한 생각이 가슴속에 젖어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카멤게 흔들어주시면서 **《오늘 연유공급소 통계원동무가 수고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차에 오르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천천히 움직이였습니다.

저는 승용차가 앞문을 벗어나 큰길가에 나설 때까지 뒤따르다가 그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큰길을 달리였습니다.

저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길이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지켜보는 저의 눈굽엔 자기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가망가망 고여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였습니다.

(아, 진정 그이는 지도자이시기 전에 평민이시다.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연유공급소의 구내길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차례를 기다리시고 법규정과 사회질서앞에서 늘 평민이 되시여 생활하신다.

그러나 그이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평민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주체71(1982)년 8월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농사작전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은천군의 올해농사가 주목된다. 다수확의 담보를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해 온 군이 불도가니처럼 끓고있다.

농사차비전투를 조직지휘하는 일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천에 옮겨지는 그들의 작전을 살펴보면 올해 알곡생산목표는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이곳 일군들이 다수확의 담보를 어디서 찾았는가.

우선 대동강하류의 간석지논들에 관개체계를 새로 세우는데서 찾았다.

군에는 간석지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포전들에서 정보당 1t이상의 논벼만 증수해도 근적인 알곡생산계획은 문제없었다.

그런데 이 간석지논들은 염피해를 받아 해마다 알곡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모기르기만 보아도 모판주변에 관우물의 염도가 높아 모의 생육에 지장을 주었고 모내기한 포전에 염피해를 가셔낼 물마저 부족하였다.

때문에 일군들은 간석지논들에 새로운 관개체계를 세우는것을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중심고리로 보았던것이다.

군에는 능력이 큰 지수지들이 여러개나 있는데 이 물량이면 간석지논들에 물을 원만히 대줄수 있었다. 그런데 간석지논까지 물길을 새로 내고 구조물들을 건설하자면 많은 품이 들었다.

타산해보니 새로 건설해야 할 물길만 해도 수십km나 되고 구조물공사를 하는데만도 많은 세멘트와 철근이 필요했다. 그만큼 아름찬 공사이다보니 지금까지 걱정만 하면서 미루어왔던것이다.

조건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우는소리나 하여서는 언제 가도 간석지논에서 다수확을 낼수 없다는 절론밖에 나올것이 없다. 당과 국가앞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우리 힘으로 능히 해낼수 있다.

문제가 여기에 귀착되자 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우리에게 당정책관철에서의 무조건성이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되여있는가를 이번 계기를 통해 당과 국가앞에 검증받자.

그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방도를 더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옴지구에 흐르는 하천주변에 지하저류지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 간석지논의 염기를 제때에 가셔내기 위해 이미 있던 2개의 양수장을 용배수양수장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의 경험을 다시한번 분석해보았다. 일부 간석지논들에서 큰모와 영양단지모로 모를 냈는데 일이 6배인 영양단지모는 7~10일만에 벼일이 누렇게 되면서 시들어갔다. 그러나 큰모는 그때까지 생육상태가 좋았다.

이것을 놓고 일군들은 벼모의 잎수가 많고 벼대가 튼튼할수록 체내에 영양분이 많아져 염피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간석지논에서 큰모재배방법의 우월성을 다시금 확증한 일군들은 올해에 큰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큰모의 모판키일이 긴 조건에 맞게 모판적지를 바로 정하고 모판자재준비를 잘하도록 작전하였다.

특히 모판에서 대당 영양면적과 잎수, 아지수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웠다.

이뿐이 아니다.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후민산, 유기질복합비료생산준비와 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었다.

이렇게 꼽들여 세운 알곡증수를 위한 작전안은 모두에게 신심을 주었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모든 농장들에서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결과 농사차비에서는 비약이 일어났다.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려는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첫 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1만여㎥의 토량을 처리하였으며 능력이 큰 지하저류지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게 되였다.

당과 국가앞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다수확의 담보를 찾아쥐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는 은천군의 올해농사결실이 참으로 기대된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서사시

더 높이 울려퍼지라 백두산대국의 혁명군가여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조광철, 김현아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
성스러운 정의의 위업에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혁명군가로 복무해온 빛나는 자욱들을
우리 긍지높이 불이켜보노라

돌이켜보노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합창으로 높이 부르며
첫 고고성을 터친 그날로부터
장장 70년세월
최고사령부의 목소리를 온 나라에 울리며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우리의 행군길을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그 자욱자욱마다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긴
우리의 혁명군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원쑤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안겨주며
위력한 사상의 무기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그 전통을 이어
오늘도 더 높이 울려퍼지는
계속혁명, 계속전진의 노래
백두산대국의 혁명군가의 장엄한 메아리를
조국이여 인민이여 들으시라

1

이 나라 남녀로소가
이 나라 산천초목이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뜨겁게 젖어있는 2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어버이장군님의 환하신 그 미소
내리는 눈발속에 어리어오고
귀기울이면 금시라도
자애에 넘친 그이 음성 울려오는듯

—동무들, 축하하오
우리 공훈국가합창단이 벌써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구만…

우리 장군님 호탕하게 웃으시며
혁명군가로 헤쳐오신 선군장정의 길을
우리들과 함께 감회깊이 추억해주실듯
그날에 높이 울리던
우렁찬 혁명군가를 요청해주실듯

그리워 정녕 그리워
이 아침 우리의 혁명군가도 그리움에 젖어
우리의 온넋이 그리움으로 불타올라
부르고싶어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호느끼며 부르던 그 노래
부를수록 가슴뭉클 젖어드는
《장군님 생각》

바람에 나무잎이 날려도 그리워지고
저 하늘 흰구름을 보아도 더욱 그립네
…

얼마나 장군님이 그리우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몸소 마이크를 잡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리도 절절히
노래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으랴

구름아 나를 실어가주렴
아버지장군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고픈 이 마음 그리움에 불타네
…

아, 그날
우리는 알았어라
이 나라 천만심장의 그리움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도 따를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열렬하고 무한한
그이의 그리움의 세계를

우리는 보았어라
정으로 따르고
심신을 다 바쳐 받든분은
우리 장군님 한분이라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하늘처럼 태양처럼
장군님을 늘 마음속 첫자리에 모시고계신
그이의 심중에서 흘러넘치는
그 뜨겁고도 순결한 그리움의 눈물을

그 그리움을 안고
해마다 우리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는분
그 그리움을 안고
주체예술의 최전성기를
혁명군가로 이 땅우에 펼쳐가시는분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장군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이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보인 공훈국가합창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태어난
우리 혁명의 산아이며
당과 숨결을 함께 하며 시련의 언덕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아, 장군님!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길에서
우리 원수님께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또 하나의 전투부대
한생의 유산과도 같은
음악정치의 위력한 보검을 넘겨주시였거니

우리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며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합창단이던가
자신의 아전복자락에 꼭 감싸안으시고
사랑이라면 대를 두고도 갚을길 없는 사랑
믿음이라면 저 하늘끝에도 비길수 없는 믿음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여
장군님의 넓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는
《김정일합창단》!

눈앞에 어려오누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안고
력사앞에 세계앞에
미증유의 첫 합창음악회를 펼친
1995년 12월 24일
잊지 못할 그날이…

20여곡의 노래를
모두 합창으로 내뿜는 전례없는 공연
그 자태는 천군만마의 기상
그 위력은 방사포의 일제사격
그 열기는 끓어솟구치는 활화산의 분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그때
우리 장군님 합창포성으로
세계앞에 선언하시였거니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 수령님의 혁명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는 김정일이 아니다
부르자 혁명군가를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오, 뜻깊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의 혁명군가는
장군님 높이 추켜드신
신념의 붉은기!

그 붉은기를 전두에 날리시며
그이는 철벽을
깊이 닳도록 넘으시였어라
초인간적힘과 의지로 헤쳐가신
오성산칼벼랑길과 초도의 세찬 풍랑길
그 몇번을 멈추시여 아픈 마음 달래시던
강계와 희천에로의 눈보라천리길을
그이는 하루와 같이 이어오시였어라

그 붉은기를 힘차게 날리시며
그이는 조선의 첫 위성을
만리대공 우주에 솟올리시였어라
혁을 들고 날뛰는 원쑤의 머리우에
선군조선의 핵철퇴를 안기시였고
우리 식의 CNC화를 안아오시며
이 땅우에 만복의 씨앗들을 뿌려놓으시였어라
사회주의강국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였어라

기를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시며
혁명군가와 끝없는 심장의 말나누신분
혁명군가에서 천금같은 조언을 받으시고
혁명군가에서 용솟는 힘과 용기를 느끼시며
만고풍상의 성스런 혁명실록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오신 장군님

안겨주시였어라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이 어린 친필서한
—공훈합창단 전체 동지들에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군대의 영원한 동행자,
힘있는 나팔수가 되라!

그토록 많은 품을 들이시고
그토록 정을 기울이신 합창단이기에
나날이 불타보게
어엿하게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장군님 그 얼마나 대견해하시였던가

합창단의 열사람, 백사람을 모두
그 넓은 품에 안고계시며
어버이로서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통채로 안겨주신 장군님

언제였던가
우리 장군님
공훈국가합창단 100차공연을 보아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연장소로 나오셨던 뜻깊은 그날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한가
남성합창 《발걸음》을 들으시며
그리도 기쁘시고 만족하시여
거듭거듭 박수도 보내주신 장군님

공연이 끝나서는
합창단성원들을 한품에 안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감회깊이 하신 그 교시

—오늘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첫 합창음악회막을 올린 때로부터
15돐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내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합창단공연을 100회나 보아주었는데
이것은 말이 쉽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공훈국가합창단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아, 세월이여 세월이여
분노니 통시고금 어느 시대, 그 어느 력사에
이런 령도자, 이런 위인이
또 있었더냐

그래서 우리 원수님
공훈국가합창단을 생각할 때면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새벽 1시가 넘어 걸어오신 마지막 전화도
합창단의 12월 24일 경축공연준비를
잘 도와주라는 당부의 교시였다고
그리도 뜨겁게 추억하시는것이여라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준엄했던 그 세월
천만심장에 불을 지핀 우리의 혁명군가는
억천만번 죽더라도 혁명을 하자고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하신
장군님의 심장의 호소였음을

무심히 듣지 마시라
우리의 노래를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신분
희세의 정치원로, 백전로장이시기전에
먼저 음악을 사랑하신

정의인, 열의인이신 그이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혁명군가의 구절구절에 흐르고있기에

정녕 우리의 혁명군가는
오로지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세차게 고동친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
탁월한 선군정치, 음악정치로
조국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실체!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친솔하시는
찬양한 빨찌산나팔수들의 메아리
조선혁명의 핵심부대의 힘찬 발걸음소리

—장군님,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합창단을
온 세상에 빛내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
끝까지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아, 혁명군가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조선혁명을
혁명군가로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그이의 억척불변의 신념

이렇게 더 굳건해졌다
이렇게 더 씩씩해졌다
붉은기날리는 최고사령부에
변함없는 혁명의 좌지를 정하고
대를 이어 더 높이 울려퍼지는
선군조선의 혁명군가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거연히 서계시는 만수대언덕아래
합창단의 전용극장을 마련해주시고
끝까지 혁명의 한길 가자고
운명의 한피줄 이어주신 그이

그이는 우리의 노래로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 쓰러질번 한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인민의 령도자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죽어도 베고 죽어야 할 혁명신념을
다시한번 심장깊이 새아박아주신분

그이는 우리의 혁명군가로
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천만장병들을 조국결사수호전에로
힘있게 부르시는 백두의 장군
우리의 혁명군가를 최전방에서 울려주시여
총 한방 쏘지 않고도 이기는
무전무혈의 쾌승을 안아오신분

그이는 탁월한 선군정치, 음악정치로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내 나라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는 절세의 위인
제국주의목줄을
사회주의승리로 쳐갈기시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승의 기치로 더 높이 추켜드신분

하여 우린 그이와 한심장이 되었노라

열혈의 충신들은 또 그 얼마…

눈보라 눈보라 혈전만리길…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조용히 눈굽을 닦으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장군님의 눈가에
아프게 어려왔어라
수령님의 머리우에 언듯언듯 내려앉은
너무도 때이른 흰서리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천만로고로
수난많던 이 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전화의 불길만리 헤쳐오신 수령님
오늘도 그날의 군복 벗지 못하신채
복구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피어린 투쟁의 낮과 밤을 이으시는것인가

그 인력 하늘같아 만민이 우러르고
그 업적 위대하여 만민이 칭송하는
절세의 애국자 우리 수령님
어이하여 오늘까지도
종파놈들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셔야 하는가

장군님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증오와 의분의 격랑이여
어느 놈이 감히 천심이 떠받드는
수령님의 권위를 허물수 있으랴
어느 놈이 저 하늘의 태양에 대고
감히 삿대질하느냐
우리 장군님 투사들에게
근엄한 어조로 교시하시여라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좋은 노래가
더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창작사업을
인민군대에서 맡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취푸리처럼 쏠라닥질하며
양봉음위, 동상이몽하는 놈들의 면상을
수령님에 대한 노래로써
보기 좋게 쳐갈기실 그이의 결심

불비쏟아지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친히 《축복의 노래》를 지으시며
수령님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
다시한번 간곡하게 이르시여라
수령님에 대한 노래창작은
더는 미룰수 없는 혁명전사들의 임무이라고

마침내 그리도 기다리고기다리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창작되였을 때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나선 종파놈들
조선의 아침이 동해에서 밝아오지
어떻게 백두산에서 밝아오는가
이 표현이 자연의 법칙에 맞는가
무슨 노래가 뻘때쭘처럼 긴가
온갖 궤변을 늘어놓던 그때

우리 장군님
단호하게 하신 교시
—안됩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진대도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무조건 이대로 불러야 합니다!

천년 드높지 않을 백두의 산악과 같이
칼날같은 서리발어린 기상으로
종파놈들의 죄행을 추호도 용서치 않음
불타는 각오와 의지를 안으신 장군님

그이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형상된 수령송배, 수령흠모의 송가가
수령님을 모시고 모란봉극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그날

남성합창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노래가 정말 잘되였다고
인민군대의 영웅적성격이 잘 살아난다고
만족하시여 몇번이나 외우시며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그렇다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그 노래는 우리 당에 도전해나선 종파놈들을
통채로 용광로에 쓸어넣겠다고
두주먹을 부르쥐고
강재 1만t 증산을 결의해나선
우리 로동계급의 열띤 궤침이였고

그 노래는
수령님 한분만 믿고 산다고 정중히 아뢰인
정녕한 대성할머니와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목소리

아, 우리 장군님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혁명군가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며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수령옹위의 신념이여

그 신념으로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백두의 설한풍과 전화의 불비
력사의 불풍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진정 공훈국가합창단의 70년사는
혁명군가의 장엄한 포성으로
당과 수령을 옹위해온 자랑찬 투쟁의 력사
우리가 물려받았고
대를 이어 물려줄 혁명군가의 영원한 전통도
당과 수령을 받들어갈 신념과 의리의 전통

우리에게 신념이 없다면
남는것은 한갖 예술지상주의뿐
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선로동당만을 따를 신념을 지녔기에
우리는 직업적인 혁명가
우리는 혁명의 나팔수

그 신념으로
우리는 세상에 내놓지 않았던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우리 장군님
그 몇번을 만류하시고
그 몇번을 엄하게 불허하시였건만
이것만은 우리의 량심이고 의무이며
이것만은 우리의 신념이고 의지이기에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는
대를 이어 태양의 송가를 높이 울리였거니

그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또다시 머리쳐든 현대판종파분자들
용납할수 없는 만고의 죄행을 심판하며
우리는 단 몇시간만에
수령옹위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어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

백두산위인들이 첫 군복을 입혀주고
백두의 무장을 매워준 그 손길에 이끌려
최정예장군으로 자란 조선인민군단 한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 새로 창작형상한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와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는
반종파투쟁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역시 공훈국가합창단이 다듬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이밖에 모른다
저 하늘에 태양이 둘이 필수 없듯이
우리는 오직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며
그이의 령도에만 충실하리라
오직 그이의 정의의 지침과
오직 그이의 전략적구상과
오직 그이의 명령에만!

이는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공훈국가합창단 70년사의 자랑찬 총화
백두의 대업을 혁명군가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 합창단의 본태!

우리는 뼛뼛이 자부하노라
수령을 받들어온 영광의 행로우에
수령송가를 높이 부르며
밀려드는 제국주의폐무리들과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을
무자비하게 쳐갈겨온 결사옹위의 력사를

긍지높이 웨치노라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던
혁명의 1세대 예술인들처럼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
자랑스러운 2세대 예술인들처럼
위대한 김정은동지만을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를

감히 그 누가 우리의 최고존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욕되게 한다면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는
즉시에 비수가 되고 폭탄이 되리라
제국주의아성을 겨누고있는
《화성》과 《북극성》들의 예측 못할 위력에
또 하나의 무기
혁명군가의 일제사격의 포성을 합치리라

처억 처억—
지축을 울리는 거인의 발걸음
만리를 주름잡는 장군의 보폭으로
조선의 꿈과 리상을 세기에 펼쳐가시는분
우리 살아도 죽어도
그이의 위대한 사상, 위대한 풍모를 노래하리라

그이 바라시는것이라면
혁명군가의 우렁찬 함성으로
천만산악을 통채로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하늘땅이 그대로 그이 의지에 복종케 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신념

그 신념으로 우리 높이 추켜든
한복의 붉은 당기여
그것은 아, 그것은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이시다!

진정 우리의 혁명군가의 력사와 전통은
수령옹위의 력사
수령옹위의 전통
이로써만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리니

부르리라
세상에 둘도 없는 김정은합창단
백두산대국의 빨찌산나팔수들은
영원히 영원히 부르고 부르리라
수령옹위의 노래!
태양옹위의 노래를!

3

만일 우리의 혁명군가에 대해서
그 폭과 길이
그 장중함과 기백
그 혁명성과 전투성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리
김정은동지, 그이의 위대함에 대하여

그 이름속에
세계가 그토록 부러워마지 않는
주체와 선군으로 일관된
우리 혁명군가의 위력이 있어라
세계가 그토록 듣고싶어하는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
투쟁과 진격의 함성
기적과 승리의 개가가 있어라

김정은동지!
정녕 그 이름속에
백두산대국의 강대함과 기상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미래
자주화된 새 세계의 모습이 비껴있거니

그분이시어라
공훈국가합창단을
우리 나라 음악예술발전을 추동하는
맏아들예술단체로 내세워주신
주체음악예술의 거장

그분이시어라
낮과 밤, 시공간의 제선을 넘어선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들을 찾고 또 찾아오시여
새시대 음악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
탁월한 스승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시고
기쁨도 행복도 음악에 담아 느끼시며
피로움도 슬픔도
음악으로 씻어버리시는 그이

그리도 음악을 사랑하시는분이여서
새 노래가 창작되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몇번이고 듣고 또 들으시며
주옥같은 명문장, 명선률로
하나하나 다듬어주시고
그 형상과 보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우리 원수님

누가 알랴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조국찬가》며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근위부대자랑가》
《전쟁의 3년간》
《당이여 그대 있기에》…
그 한편한편의 노래들마다에
우리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
얼마나 그 얼마나 뜨겁게 슴배여있는지

정녕 그 누가 헤아릴수 있으랴
창작가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어느덧 희미해진 추억의 노래들도
새 모습으로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깊은 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그길로
또다시 우리들의 창조현장을 찾으시여
새날이 밝도록 지도해주시며
영원한 인민의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신것임을

언제나 새롭게
남보다 멋있게
이것은 만족을 모르시는
그이의 창조원칙!

시대를 힘있게 선도하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을 지펴주는
시대의 명작, 력작이
그이가 바라시는 주체예술의 최고봉!

세계 그 어느 예술단체도
감히 따라올수 없으며
흉내낼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합창단이 되라 하시며
자신의 첫 예술사절단으로
사랑의 특별비행기에 태워
외국원정공연까지 친히 조직해주신 우리 원수님

5면으로 계속

서사시

더 높이 울려퍼지라 백두산대국의 혁명군가여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에 즈음하여-

4면에서 계속

그이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을 지니어
세계의 통신, 보도가 지켜보는
속에서
모스크바광장을 활보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은
그리도 위엄있고 당당했어라

그이 안겨주신
힘과 슬기를 안고
선군조선의 혁명군가를
온 세계에 메아리로 쩡쩡 울리며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 사는
가를
온넋으로 절감한 우리가 아니던가
그 품이 품에도 그리워
머나먼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그리움에 가슴태우던 우리들이
아니였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
상상을 초월한다
—고상한 도덕과 진정한 문화가
어떤것인가를
세계에 보여준 공연
—조선의 주체철학이 담겨진 공연
최고의 최고!

온 로씨야땅이 그대로
합창단공연열풍으로 끓어번지던
그 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긍지높이
웨칠수 있었다
우리에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위대한 김정은동지가 계신다고

행복하어라
인류가 창조한 문명과 지성의
높이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그이를
스승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또한 영광이여라
그이의 슬하에서
그이의 령도를 음악으로 받드는
무한히 영예로운 우리의 삶은

하여 우리
목숨보다 더 귀중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에 대한 불서리치는 증오며
만난을 이겨내고 비약하는 만리마의
힘찬 기상
미래에 대한 불타는 열망
혁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성한
감정을
사상의 불소나기, 신념의 뢰성인
우리의 혁명군가로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정신을
이어
끝까지 백두의 대업을 완수해나갈
굳센 의지와 결심이 어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혁명군가로 대변하고있다

진정 우리는
그이의 심장에 피줄을 이은 살붙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를수 없고
떼여낼수도 없는
우리는 그이의 분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원수님 한분밖에 모르며
얼떡번을 다시 태어난대도
그 품에서 살리라 맹약한 우리이
기에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합창을
김정은시대의 진군가로 목청껏
터치였나니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시대의 걸작, 대작으로 완성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
을 가리라》이건만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원수님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 예술인
들이
나의 의도에 맞게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
을 가리라》를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조선혁명의 혜심부대,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집행자
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
습니다

오늘처럼 당의 높은 기대에 보답한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 예술인
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이며
그들모두를 업어주고싶은 심정입
니다

이런분이시다 우리 원수님은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시며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
을 가리라》에
김정일상을 수여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친어버이
건군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 한등급
이상의 군사칭호를
한날한시에 수여해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연단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을 국가의 자랑이
라고 말할 때
최고사령관에게 무한히 충실한
합창단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정말 긍지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살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교양
수단이며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귀중한 보배
들이며 인재들입니다

—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를
들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목숨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군
합니다

—우리 당은 공훈국가합창단과
같이
최고사령관을 끝까지 따라갈
조선혁명의 기관차,
오늘의 정정한 백씨산나팔수들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해나갈것입
니다

아, 이런분이시다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
폭발적인 정열과 심원한 철학으로
정치와 음악을 하나로 결합시키신
희세의 정치가!

진정 그이는
음악이라는 신비한 무기로
시대와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우러러 높이 모신 우리의 태양!

그 빛과 열
그 뜻과 정에 이끌린 우리이기에
정말로 그이의 모든것에
끝없이 매혹된 우리의 넋이다
오직 충정으로만 높뛰는 우리의
심장이다
재간이 아니라 심장으로
따르며 받드는 우리의 삶이다

부러워하라 세계여
황금만능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과 혁명적
정서의 힘으로
21세기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를 부러워하라
조선을 우러러보라

아, 김정은동지!
태양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그이를 받들어
우리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우리 더 높이 부르리라
대를 이어 불러온
수령옹위의 노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선군조선의 혁명군가를

우리의 노래와 더불어
항상 앞으로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피끓는 심장을 내대고 나아가는
위대한 당군의 병사들이 합창한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
다》의 노래로

백두의 성스런 대지에서
영용청년신화를 수놓아가는
위대한 청년강국의 주인들
우리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합친다
노래 《청춘송가》로 환희로운 원무
를 펼치며

몇천몇만의 식량보다도
한편의 혁명적인 노래를 더 귀중
히 여겨온 인민이
소중한 꿈이며 리상인 사회주의
강국을
자력자강으로 보란듯이 일떠세
우며
힘차게 부른다 《전진하는 사회주
의》를

혁명군가의 대합창이 울려퍼진다
우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리정표를 가슴에 안고
막아서는 난관과 시련을 박차며
천리라도 만리라도 당을 따라
가리라
일편단심 변함없이 간직한 이
나라 천만군민이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를
소리높이 웨친다

장군은 강대한 조선의 기상
장군은 높뛰는 조선의 심장
…

오, 이것이
우리의 혁명군가의 핵이다
이것이 조선의 모습 일심단결이며
이것이 조선이 이룩해가는
모든 승리의 원천이며 비결이
거니

오만무례한 원쑤에겐 영원한 장송
곡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겐 영원한
전승가를 안겨주는
우리의 혁명군가는 승리의
전주곡!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세계는 보게 되리라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노래와도
같은
그리고 노래를 사랑하는
이 나라 인민의 정의로운 삶의
흐름인
사회주의위업의 승승장구를
총칼로써도 핵으로써도 그 어떤
힘으로써도
막을수도 짓누를수도 없는
사회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그 우렁찬 메아리를 듣게 되리라

아, 그날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인류가 경탄하는 리상향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위업을 완수
하는 그날
우리 보란듯이
최후승리의 정축음악회를 펼쳐
놓으리니

더 높이 울려퍼지라
백두산대국의 혁명군가여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지심을 흔들며
누리에 떨치며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높이 울려
퍼지라!

백두산밀영에서 만난 사람들

영원히 백두의 후손답게

풋김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자들중에는 70고개를 넘긴 평양시도국의 당선전일군인 안히두봉무도 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반일애국렬사 안록주동지의 아들이다. 《E. C》의 기치가 나붓기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청년전위들중의 한사람이였던 안록주동지는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이름그대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빛나는 생을 마치였다.

안히두봉무는 위대한 수령님 따라 백두의 초행길을 걸은 아버지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백두의 후손답게 살려는 신념의 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벼리며 비록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백두의 행군길을 앞장에서 걸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혁명의 성지를 찾은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간직되어있었다.

우리는 소백수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에 참가한 미더운 청년전위들도 만날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인 최철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평양시 답사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맹세로 불타고있습니다.》

혁명의 수도를 떠나는 그날부터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고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길에 오른 이들이였다. 평양시 답사행군대원들은 행군의 나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과 문답식학습경연 등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답사행군의 진과 정이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절사옹위하는 충정의 행로가 되도록 하는데서 앞장서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의 미더운 모습

하기에 박유철, 정일순, 리정연, 최명일, 정일선동무들을 비롯한 수도의 청년전위들은 답사행군길에서 삼지연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맑고 정중히 모시기 위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쳤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자라나는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항일유격대의 군의들처럼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 대원들속에서 우리는 대오의 앞뒤를 오가는 의사, 간호원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김만유병원의 의사 황명일동무와 간호원 정지향동무였다.

용기백배, 사기충천하여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행군길을 다그치는 답사대원들속에 단 한명의 락오자도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였다.

영예로운 답사대오의 한성원이 되여 항일유격대의 군의들의 모습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걷는 그들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대오에 환자가 생길세라 행군중의 휴식시간이면 더욱 바빴고 행군이 끝난 저녁에도 치료가방을 메고 답사행군대원들을 찾아다닌 그들이였다.

때로는 행군길에 쓰러진 답사행군대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애어린 처녀들이 사나운 강추위에 동상이라도 입을세라 각근한 지성을 기울이며 백두의 행군길에서 마음도 걸음도 함께 하는 그들을 두고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유격대의 군의들이라고 칭담이 분했다.

본사기자 김준혁

작품들에 비낀 그리움의 세계, 환희의 격정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예의 고유한 특성은 하나의 글자, 한개의 단어, 짤막한 문장을 가지고 큰뜻, 심오한 사상을 피력하며 그 뜻과 사상이 글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는데 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있는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에 출품된 300여점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에는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 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정서가 민감하게 반영되여있어 참관자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서예작품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소백수골8경》과 더불어 펼쳐보인것이다.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원, 학생들이 출품한 서예작품들은 《소백수골8경》의 하나하나의 경치를 보여주는 배경에 각이한 서체적특성을 잘 살린 활달한 필치로 형상된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잘 보여주고있다.

서예의 내용은 뜻을 가진 글자와 단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서예의 사상은 글자의 뜻을 어떤 사상감정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글자에 깊은 뜻이 있어도 그것이 서예가의 사상감정과 열정이 담겨진 운필에 의하여 씌여지지 않을 때에는 서예라고 할수 없다.

청봉체의 흘림글씨와 전통적인 글씨체의 하나인 풀결체로 독특한 경치들에 어울리게 서예적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평양미술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붓에 묻히는 먹의 농담조절, 풀기조절을 조화롭게 하고 글씨를 일필휘지로 씀으로써 서리꽃이 피여난것만 같은 피음효과도 나타내고 속포가 터지는것 같은 환희로운 느낌도 주었으며 끝없이 흐르는 소백수의 용용한 흐름과 백두산악의 바위질감도 현상해볼수 있게 하는 훌륭한 서예적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고급중학교 학생이 출품한 작품에는 《소백수골8경》의 매 경치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싶은 인민의 마음을 담아 소박한 동시들이 씌여져있어 시적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이 《소백수골8경》의 여러가지 서예적형상과 함께 굽이치는 대하처럼 느껴진다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서예작품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색적인 선률처럼 참관자들의 심장을 울어잡는다.

만수대창작사 미술가가 부채모양의 종이에 쓴 노래 《고백》의 구절구절들과 평양중등학원 고급반학생의 서예작품인 《사랑의 품》을 감상하느라면 마치 그리움의 노래들이 작품들에서 절절하게 울려나오는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환희를 담은 서예작품들도 축전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인민의 환희에 대한 가장 뚜렷한 표상은 통심이 반영된 서예작품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감수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함흥시 성천강구역 하신흥초급중학교 학생의 작품 《학습장도 가방도 신발도…야 멋있어! 꽁땅 우리거야》와 사리원시 대성소학교 학생의 작품 《우리 교실은 민들레꽃밭》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것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헌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안겨오는 작품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민들레학습장을 펼치고 행복의 웃음짓는 자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꽃이여서 우리 교실은 민들레꽃밭이라고 한 동심의 주장이 참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학습장도 가방도 신발도 우리의것을 쓰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청소년학생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그들의 환희의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것은 서예작품들에 비낀 동심의 반영인 동시에 인민의 환희의 분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더더욱 아름다와질 희망찬 래일에 대한 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좋은 래일을 말없이 마중가는 인민의 락관적인 모습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필승의 기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인민의 그리움이 얼마나 강렬한것인가를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이 마중가는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환희가 사람들의 심장을 어떻게 부풀게 하는가를 이처럼 뜻과 희의 예술형식으로 보여준 여기에 이번 축전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 인민은 뜻깊은 2월과 더불어 더 뜨거워지는 이 그리움과 환희를 심장에 영원히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최후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제32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2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은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190여건의 성과자료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린 《아크릴산 및 에스테르합성공정자동조종체계》, 《룡악산비누공장 통합생산체계》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국산화기술을 보여주는 《휴대용역변환식 클라즈마절단기》, 《초음파의 공업적응용》, 《지하전동차용고속도차단기》, 《다통로원자형광분석기》 등이 있다.

축전은 기계공업, 정보기술, 금속재료, 기초과학 등 8개 분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및 첨단기술제품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된다.

21일에 있은 개막식에서는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축전을 통하여 연구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현실에 적극 도입하며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을 한계단 끌어올려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광명성절경축 제일조선인예술단이 장기생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제일조선인예술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용호외무상, 조선팔레스티나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인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명선, 심국룡, 김인범, 서호원,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창조적인 국가지도자로서의 특출한 귀감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 억압받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지지해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만리마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마흐무드 아빠스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팔레스티나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순천구두공장에서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잘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일별, 주별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선진과학기술과 새로운 연구성과자료들에 대한 보급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공장의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여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독자의 편지

우리 인민보안원을 자랑합니다

회창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인민보안원으로 사업하는 차영근동지를 가려켜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정을 담아 부릅니다.

한것은 그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쉬임없이 걷는 참된 인민의 보안원이기때문입니다.

차영근동지가 인민을 위해 발휘하고있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소행들가운데서 저는 다만 우리 가족을 위해 바친 그의 뜨거운 진정과 헌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으로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굳게 결심하고 군관의 안해가 되여 보람찬 군인가족생활을 하던 저의 딸 김충심은 몇해전에 불치의 병에 걸려 그만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영근동지는 어떻게 하나 저의 딸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친정집에 와있는 그에게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군 하였습니다. 때로는 병치료에 좋다는 귀한 약제를 구하기 위해 수백리 먼길을 한밤중에 다녀오기도 하고 때로는 수도의 중앙병원들에 데려가 유능한 의사들의 협의도 받았으며 안해와 함께 영양식료품들을 들고 자주 찾아와 위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충심의 어린 딸자식의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원심을 쓰며 명절날, 기념일들과 생일날이면 새옷과 간식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그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수년세월 저의 딸을 위해 기울인 그의 불같은 혈육의 정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보안원들을 키워준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는 이런 인민보안원을 널리 자랑합니다.

회창군 석황로동자구 20인민반 김영옥

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고발장

지난 세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군국주의일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로 입은 상처는 의연히 아물지 않고있으며 인류는 그런 불행한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여러번 교체된 오늘까지도 반인륜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력사외곡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끼여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허울에 가리워진 일본의 혈악한 인권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제법적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일본이야말로 인권을 혼할 입고의 명분도, 자격도 없는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당국의 악정하에 짓밟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권

인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매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기본적인권보장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그러한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보장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인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을 노린 패거리싸움과 리합집산,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을뿐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모든 근소정당들이 우익보수화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가 심히 억제되고있다.

2014년의 총선거에서 투표률이 52%에 이른것, 여론조사에서 《후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0%를 초과한것을 비롯하여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고있는것은 특권층만이 활개치게 하는 일본정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인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선거란 애초에 인민을 기만하는 정치협잡공간에 불과한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은 일본에서 사상 최악으로 되고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조는 사상 및 량심의 자유,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금제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직후 이전의 악명높은 사상경찰(특별고등경찰)을 공안경찰로 부활시키고 미군강점시기의 특별심사국을 공안조사청으로 재조직하여 인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을 권력기관들의 주요기능으로 부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고있다.

엄중한것은 언론기관들이 지배층의 비위에 맞추어 정보조작과 허위정보류포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지난날 도죠나 히틀러가 보도매체들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파쑈화에로 질주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권력쟁탈이나 유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올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의 모든 성원들이 직업을 가질 권리,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분배받을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재벌의 리익만을 중시하는 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시책들로 하여 일본고유의 사회적차가 2014회계년도에 최고 100배이상, 평균 44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의 광국분화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이 광고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근로대중의 혈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근로대중이 사회적혜택을 입는다는것은 자기의 피땀으로 얻는 대가일뿐이며 그마저도 당국의 차별적이고 금전본위적인 시책들로 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일본당국은 일본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제버리고 전국민보험과 전국민년금제도의 강압실시, 로인의료무료제도의 폐지, 소비세도입과 단계적인 세률인상을 비롯하여 근로대중을 세금 및 보험료징수의 올가미에 든든히 얽어매놓고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2중3중으로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2016년도에 산에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분을 1 700억엔이나 삭감한 반면에 위헌적인 군사비를 4년 련속 늘여 5조엔을 돌파하는 등 무자비한 수탈전쟁으로 인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수탈한 혈세로 전쟁국가를 만들면서 인민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하는 《1억 총 불안사회》로 돌진하고있는것이다.

자살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만도 2만 4 025명, 하루평균 66명이 자살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급증되고있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자살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리유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한많은 사회를 등지고있다.

이처럼 근로대중의 정치, 사회경제적권리와 같은 기본적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국이 《권리보장》과 《복지》를 운운하고있는것자체가 공정한 여론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2.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회적약자들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해당 나라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일본은 1985년에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데 대한 협약에 가입하고도 2003년과 2009년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가 결정한 수차례의 개선권고를 외면하였을뿐아니라 2015년에 만들어낸 《녀성활약추진법》에서는 자녀양육지원, 성적차별금지, 고용 및 임금차별해소 등 녀성들의 최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기업들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녀성들의 권리를 리윤중심의 시장경쟁마당에 내던지였다.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며 보육소에 맡기지 못하는 어린이수가 2016년 3월현재 정부의 통계상수자를 훨씬 넘어 100만~300만명에 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녀성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세계경제연단이 발표한 2016년판 남녀격차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44개국중 일본이 111위라고 밝힌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1989년 11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리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나 일본에서는 어린이인권침해가 불치의 사회악페로 되고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일본에서는 약 9만건의 어린이학대행위가 발생하고 극심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은 2015년에 2만 8 923명에 달하였으며 어린이학대건수는 최근 15년간 7배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당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2016년 5월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지만 어린이학대상담소를 늘이는것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며 2015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는 등록된것만도 1 938건에 달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2015학년도에 22만 4 540건의 교내폭력행위가 발생하고 학생에 대한 교원들의 학대,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신성한 교정은 륜리의 폐허, 폭력의 란무장으로 화하고있다.

아이찌현에서 17살 난 고등학교학생이 65살 난 늙은이를 란도질하여 죽인 후 그의 가방을 강탈하고 요꼬하마시에서는 15살 난 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얼마전 지바지방재판소가 고등학교 동급생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19살 난 소녀에게 무기징역형을 언도한것을 비롯하여 2014년 한해동안만 보아도 일본에서 청소년범죄가 공식 기록된것이 4만 8 36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보호도 없이 내버려진 청소년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014년 10월시점에서 일본총인구의 26%인 3 300만명이 65살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유엔이 설정한 《초고령사회》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당국은 그들의 생활보장비를 늘일 대신 오히려 년금, 의료비를 비롯한 고령자생활비용을 예산지출삭감의 우선적인 항목으로 위급하거나 지어 고령자들의 생명선이나 같은 년금적립금을 투기자금으로 마구 람용하고있다.

결과 일본에서는 고령자빈곤률이 34.3%이고 고령자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 047만명은 생활보조금이 너무 낮아 양로원이나 고령자용사시설은커녕 병원에서 진단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고령자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는데 일본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 상반년에 65살이상 난 로인들이 련루된 범죄건수는 2만 3 600건이상으로서 같은 기간의 청소년범죄건수를 훨씬 릉가하였다.

일본에서 로인들에 의하여 폭력, 상해, 살인 등 각이한 수법으로 감행되고있는 《백발범죄》는 대다수가 고독과 빈곤으로부터 초래되는것으로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고령자들은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감옥을 더없이 훌륭한 거처지로 여기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걷잡을수 없이 급증하는 로인범죄자들로 감옥들이 차넘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상사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고령자들에 대한 《후한 복리대우》와 《생활보장》을 탐보한다는 허울뿐인 《장수자대국》의 실상이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일본은 2007년에 서명하고도 국내사정을 구실로 계속 끌어오다가 2020년의 도쿄올림픽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무난히 치르려는 타산밑에 2013년 6월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는것을 대충 만들어내고 2014년 1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까지의 1년동안에만도 전국의 가정과 양생원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자수가 2 266명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우에마쓰라는 26살의 청년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자보호시설에 뛰여들어 《장애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죽사시키고 26명을 부상시킨 사건은 당국의 히술한 장애자대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사회적약자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의 제물로 사정없이 내던지고있는것, 이것이 오늘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

3. 인종차별, 타민족멸시가 뿌리깊은 인권불모지

인종과 성별,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제4장 제13조, 제9장 제55조,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등에 금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일본은 1956년 12월 유엔헌장을 수락한 이후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에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인 인종차별철폐의무를 명백히 지니고있으나 관련대책은 고사하고 소수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오히려 국책으로 장려하고있다.

2005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일본은 소수민족과 화교,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제3위원회에서 일본당국에 아이누족과 부락민을 비롯한 소수계 인종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을 호소한것은 일본의 인종차별실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의 선주민족으로서 홋가이도와 그 주변에 정착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누족이 력대 당국의 동화정책으로 하여 현재 인구수가 2만 4 000명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아이누말을 류창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몇명밖에 안된다고 추산되고있는것도 결국은 차별이 두려워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것과 관련되여있다.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 채택된 이후 일본이 아이누족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는 국회결의(2008년 6월)를 발표한다, 아이누족과의 《민족공생의 상징공간》으로 아이누문화박물관을 세운다(2014년 6월), 아이누정책추진회의(2016년 5월)라는것을 열고 아이누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색을 낸것은 제손으로 말살한 아이누문화를 유물로 전시해놓고 문화의 《다양성》을 광고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해보려는 인종사냥군, 경제동물의 고약하고 리기적인 심보의 발로이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백정과 장례식주관업자 등 《천민》을 가리키는 부락민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분류, 격리되여 오래동안 인간이하의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력대 일본당국은 1969년의 동화대책법, 1986년의 지역개선대책법 따위의 위선으로 그들의 사회적고립을 더욱 조장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부락해방동맹과 같은 부락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들씌우는 등 극도의 차별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에 상주 또는 영주하고있는 외국출신의 개인 및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더욱 심각하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에 준한 외국인차별금지정책순위에서 일본은 2010년에 100점만점중 14점으로서 최저였으며 2015년에는 22점으로서 조사대상 38개국중 37위였다.

외국인로동자들을 실습생의 형태로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약 70개 업종에 년간 10만명정도 받아들이고있는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한심한 로동조건과 장시간로동, 차별적인 임금으로 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들로부터 현대판노예로동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있다.

제40차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외국인의 인권선언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공정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금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2015년 3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경제장성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실습》기간을 현재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현대판노예로동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국제로동기구는 2005년 5월에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성매매의 주요목적지의 하나라고 고발하면서 《예능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녀성들이 성봉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녀성들이 범죄조직들에 의해 비법입국하여 성산업에 종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현재 20만명정도의 불법체류자들중 대다수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녀성들이지만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는데다가 정부기관과 범죄조직들이 결탁되여있어 외국인녀성유흥업소는 전국각지에 빼짓이 널려있다.

이처럼 야마도민족의 《우월감》에 중독되여 소수인종, 타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정치풍토, 온갖 사회악이 묵인되고 조장되고있는것이 일본의 진면모이다.

4. 민족배타주의의 극치—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탄압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폭행 등 일본의 악착한 적대행위는 민족배타주의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공인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견지에서라도 그들의 생존권,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적인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일본이 1923년 9월 간토대지진때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한 만행, 패망전야에 《마쯔시로대본영》의 지하방공호와 같은 여러 비밀대상물건설에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생매장해버린 만행, 1945년 8월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귀향길에 오른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린 만행을 비롯한 전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아직도 결산되지 않았다.

그 명확들의 원한이 아직도 일본땅의 곳곳에 력력히 서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억압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저지르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법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더무너없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대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책동과 비방중상, 그 산하 각 기관과 단체들, 회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파괴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련기관들에 대한 일본공안기관들의 수색행위, 우익폭력배들의 총격 및 방화, 습격사건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의 묵인하에 벌어지고있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소수자권리선언》 제1조는 《소수자의 존재 및 그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인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의 동질성확대를 위한 조건조성을 장려하며 그를 위한 립법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제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나 공민권을 가질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그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기재된 《조선》을 입개 용어로 취급하면서 합법적영주자인 재일조선인들을 무국적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저어 일본국적으로의 변경, 귀화를 강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국적문제를 기본조건으로 걸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취직, 취학, 거주 및 혼인, 년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권 등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극단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만 보아도 국제법적원칙이나 관례, 일본에 영주하고있는 합법적인 거주상태를 놓고볼 때 《재입국》이라는것자체가 당치않은것이며 그 무슨 《허가》는 고사하고 응당 보장해야 할 의무일뿐이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입국을 불허하여 혈육상봉, 고향방문, 성묘와 같은 초보적인 인도주의권리마저 가차없이 짓밟고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권의 하나이며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국제인권규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 아동권리조약 등 일본도 수락한 국제법들과 일본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전체 조선학교들은 1968년 4월—1975년 1월기간에 모두 학교법인의 인가를 받고 교육내용과 운영에서 일본국내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회악이 살판치는 일본땅에서 민족의 얼을 지키고 참인간의 육성에 힘써온것으로 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범적이며 합법적인 민족교육거점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납세의무를 지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체들의 자체판단에 밀어버리고 동포들이 한푼두푼 모아보내는 조선학교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을뿐아니라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켜 교육환경과 물질적토대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장갑차들의 엄호하에 재일조선학생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지어 우익반동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어린 재일조선인소녀에게 달려들어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어놓는 등 통학길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여 민족의 넋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인권유린행위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은 누구라없이 일본땅 그 어디에서나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란폭한 행위들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상기의 사실들은 일본에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날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가 과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치졸한 말장난으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고있는것은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영영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저들의 인권유린실상을 감추어보려는 어리석고 간특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이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특급인권범죄국인 일본을 되고석에 꿇어앉히고 응당한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2월 21일
평 양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유치한 놀음

일본이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평화와 정의의 종》을 기증하는 광대놀음을 벌렸다. 2015년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재청사가 완공된것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그 종의 값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몇푼의 돈으로 저들을 내세워보려는 일본특유의 간특한 술책은 정치간상배로서의 그들의 도덕저저렬성만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이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본은 피로 얼룩진 과거범죄를 감추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는 미국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했던 자료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련행을 직접 보여주는듯 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뻔뻔스런 넉두리를 또다시 해댔다.

그런가 하면 어디곳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어떻게 하나 해제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남조선의 부산주재 일본총영사관앞에 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된데 대해 반발하면서 저들의 대사와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망동을 부렸다.

세계에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없다.

세계는 이번에 일본집권세력의 너절한 행위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본특유의 고질적인 악습을 다시 한번 보고있다.

일본은 언제 한번 성근하게 과거범죄를 인정해본적이 없다. 모든것을 몇푼 안되는 돈으로 어물쩍해서 덮어버리려 하다가 사람들의 환멸만 자아냈다. 어제는 저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자료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명단에 올린다고 하여 앙탈을 부리며 돈줄을 자르겠다고 치졸하게 놀아대던 일본이였다. 그런 일본이 또다시 푼돈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해보려 하고있다.

명백한 물질적증거들이 날이 감에 따라 적라라하게 드러나는 오늘에 와서까지 저들의 죄악을 부정하고 《평화와 정의의 종》같은것을 기증하는 식으로 범죄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될것이라고 보는 추악한 속물들이다.

일본지배층은 나라를 군국화하고 전쟁국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거의다 제거해버렸다.

지금은 무력보유와 교전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제한 헌법 9조를 개악하려 하고있다. 올해 정초에 현 집권자는 헌행헌법을 개악하려는 흉심을 수차례에 걸쳐 드러내놓았다.

또한 《자위대》무력의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돈을 랑진하며 정계와 군부, 군수업계가 한덩어리가 되여 군사대국화에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 전쟁국가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일본의 정체는 드러났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정복에 나섰던자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과거 일본군국주의도 자기를 과신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다가 종당에는 망하고말았다.

유치하게 아무데서나 돈주머니를 휘둘러대는자들이 똑똑히 명심할것이 있다.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는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피와 땀, 재부로 이루어졌다는것이다. 부언하건대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질문화적 및 정신도덕적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

일본이 국제무대에 나가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과거죄악과 오늘의 재침책동을 미화분식하려 하지만 세계를 절대로 얼려넘기지 못한다.

라 명 성

미국의 부당한 제재를 단호히 배격

베네수엘라외무성이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13일 미재무성이 베네수엘라 부대통령을 제재명단에 올린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미국의 독단적이며 비법적인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하며 항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정부기관들에 특수한 통제권능을 부여한데 대해 따지면서 그와 같은 조치들은 국제법에 완전히 저촉된다고 단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경제 장성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경제가 그 전해에 비해 2% 장성하였다. 17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강냉이생산전망

짐바브웨에서 올해 강냉이생산량이 약 180만t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그것은 지난해에 비해 3배이상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강냉이소출이 크게 줄어들게 된것은 엘니뇨현상에 의한 가물피해를 입은것과 관련된다. 15일 이 나라 준비은행이 밝혔다.

불법행위방지조치

케니아에서 최근 손전화기를 통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있다.

17일 이 나라의 정보통신기관은 6월말까지 비법적으로 제작된 손전화기를 적발해낼수 있는 추적체계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가짜손전화기가 사용자정보와 망접속리력을 알수 없는것으로 하여 안전사업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기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여기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의 공원

ㄱ-71029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